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① 경험적 대상을 다루는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다.
- ② 영혼을 경험 할 수 있다면, 영혼에 대한 명제는 모두 사태가 된다.
- ③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다.
- ④ ‘그림 이론’에 의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된다.
- 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는 의미 없다’라는 『논리 철학 논고』의 주장 역시 의미 없는 말이다.

문 2.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 ① 헤겔에 따르면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헤겔에 따르면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헤겔에 따르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헤겔에 따르면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헤겔에 따르면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문 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 예술가의 감정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 ① 모방론에 의할 때 예술인 작품은 표현론에 의하더라도 예술이다.
- ② 표현론에 따르면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예술 작품이다.
- ③ 형식론은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④ 형식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조건이다.
- ⑤ 제도론에 따르면 뒤샹의 샘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문 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결코 이성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 ①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의 원리를 규명하면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과 맞섰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문 5. 다음 글의 ㉠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 에피쿠로스적 사상에 따르면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 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 ① 이신론적 관점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자연학과 쾌락주의적 윤리학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이신론적 관점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자연학과 쾌락주의적 윤리학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이신론적 관점과 자연학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쾌락주의적 윤리학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④ 이신론적 관점과 자연학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쾌락주의적 윤리학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이신론적 관점과 자연학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쾌락주의적 윤리학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문 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자연물만이 본성적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자연물은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근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기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 ① 개미집을 짓는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이다.
- ②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③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⑤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문 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보 기>

- ㉠. 버클리에게 있어서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 ㉡. 어떤 사람이 찬 돌이 지각될 수 없을 때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버클리의 주장은 적절하게 반박된다.
- ㉢. 실재론자들은 세계는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반실재론자들은 정신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세계는 지각할 수 없다고 여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①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②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평행론’에 의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대상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평행론’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과 양립 가능하다.
- ⑤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문 9.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깽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깽’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깽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보 기>—

-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것이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 10.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했다. 이에 대해 콰인은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 변화도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 기>—

- ㄱ.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ㄴ.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ㄷ. 콰인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분석 명제인지 여부는 동의적 표현이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1.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선발된 사람을 고르면?

우주인 선발에 지원한 A, B, C, D, E, F, G의 7명 중에서 2명이 선발되었다. 누가 선발되었는가에 대하여 5명이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하였다.

- A, B, G는 모두 탈락하였다.
- E, F, G는 모두 탈락하였다.
- C와 G 중에서 1명만 선발되었다.
- A, B, C, D 중에서 1명만 선발되었다.
- B, C, D 중에서 1명만 선발되었고, D, E, F 중에서 1명만 선발되었다.

선발 결과가 공개된 이후 이 중 3명의 진술만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 ① A
- ② C
- ③ D
- ④ E
- ⑤ G

문 12.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떤 지역에 5개 공장이 입주하였다. 공장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입지 요인은 A, B, C, D, E이다. 이들 공장과 입지 요인 간 관계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A를 고려한 공장은 2개이다.
- B를 고려한 공장은 3개이다.
- C를 고려한 공장은 1개이다.
- D를 고려한 공장은 1개이다.
- E를 고려한 공장은 2개이다.

—<보 기>—

- ㄱ. 모든 공장이 1개 이상의 입지 요인을 고려하였다면, 5개의 입지 요인을 모두 고려한 공장이 있을 수 있다.
- ㄴ. 모든 공장이 1개 이상의 입지 요인을 고려하였다면, 동일한 수의 입지 요인을 고려한 공장은 3개일 수 없다.
- ㄷ. 어떠한 입지 요인도 고려하지 않은 공장이 있다면, 동일한 수의 입지 요인을 고려한 공장은 4개일 수 없다.
- ㄹ. 모든 공장이 1개 이상의 입지 요인을 고려하였고, 2개 이상의 입지 요인을 고려한 공장이 2개 있다면, 3개의 입지 요인을 고려한 공장이 가장 많은 입지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문 13.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음은 어떤 학과의 교과과정과 이수 규정이다. 학생은 주어진 규정에 따라 수강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최소 학기만 등록하고 졸업하고자 한다.

교양	국어, 영어, 국사, 윤리학
전공 기초	헌법(1), 헌법(2), 법철학, 법제사
전공 일반	민법(1), 민법(2), 민법(3), 형법(1), 형법(2), 상법, 행정법
전공 심화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이수 규정>

- 20개의 모든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한 학기에 3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 교양 과목은 3번째 학기까지 수강이 끝나야 한다.
- 전공 기초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전공 일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전공 일반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전공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헌법(1), 헌법(2)와 같이 번호만 다른 과목은 같은 학기에 수강할 수 없고 번호 순서대로 수강하여야 한다.

<보 기>

- ㄱ.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기는 7학기이다.
- ㄴ. 상법과 행정법은 동일 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 ㄷ. 전공 일반 과목을 1과목만 수강하는 학기는 없다.
- ㄹ. 민법(3)과 형법(2)는 같은 학기에 수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 14. 다음 글의 <실험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어린이들이 쇼핑하는 횟수가 늘고 있고, 부모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제임스 맥닐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들(4~12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에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여러 요인들 중 한 가지는 변화된 양육 방식이라는 견해가 있다. 과거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서는 거의 모든 구매 결정을 부모 자신들이 했다. 그러나 현대의 젊은 부모들은 민주적 양육 방식을 사용해 아이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것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의 시간 부족과 장시간의 근로 역시 이러한 경향성을 촉진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자 K는 소비에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실험을 수행했다. 집단 1은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 중 장시간의 근로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로 구성했다. 집단 2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 중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은 부모로 구성했다. 집단 3의 경우는 권위적이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은 많은 부모로, 집단 4의 경우는 민주적이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적은 부모로 구성했다. 마지막 집단 5의 경우는 무작위로 부모를 모집했다.

<실험 결과>

- 어린이 용품의 구매 액수는 집단 1과 집단 4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집단 2와 집단 3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 어린이 용품의 구매 횟수는 집단 2와 집단 4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집단 1과 집단 3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 어린이 용품의 구매 결정의 주체는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① 어린이 용품 구매 의사결정은 부모가 민주적인지 여부보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②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린이 용품 구매 액수에,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은 어린이 용품 구매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양육 시간도 많은 부모의 경우 어린이 용품 구매 결정의 주체가 아이들이 되도록 한다.
- ④ 제임스 맥닐의 보고가 어린이들이 구매 결정의 주체로 역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험 결과는 그 요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⑤ 다른 집단에 비해 민주적이고 양육 시간이 적은 부모의 아이들이 어린이 용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 15.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근대 사회의 핵심 이념이다. 그러나 평등이란 단어를 모든 이를 똑같이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간은 저마다 능력과 소질을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며, 확실적인 규율은 개성 존중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에 대한 요구는 모든 불평등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조건적 평등 원칙이라 하는데, 이 원칙에 의하면 어떤 이유가 제시된다면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대우를,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특정한 부류로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롤스는 그 근거로서 ‘도덕적 인격’을 제시한다. 도덕적 인격은 도덕적 호소가 가능하고 그런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능력에 대한 최소 요구치의 충족이 평등한 대우의 전제조건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싱어는 위와 같은 롤스의 시도를 비판한다. 싱어에 따르면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인격 수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평등한 것인지 차별적인 것인지 문제가 된다. 설령 그를 극복하더라도 평등한 권리를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도 문제로 남는다. 싱어는 평등의 근거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이익, 즉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 평등한 대상이 된다. 물론 이해관계의 목적은 더 많은 쾌락과 더 적은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가 강한 존재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그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는 아무런 선호나 이익도 갖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 평등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평등도 평등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다.
- ②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 평등한 대상이 아닌 존재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 ③ 싱어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평등한 대상으로 고려되는 사람들도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④ 싱어에 따르면 모든 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 절대적 평등이 조건적 평등과 같아진다.
- ⑤ 싱어에 따르면 도덕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역시 도덕적으로 평등한 대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문 16.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법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 문언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는 법의 제정과 해석이 구별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애초에 법의 제정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에 따라서 문언에 구애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종래 논의에서는 문언을 이루고 있는 언어의 불확정성에 주목했다. 단어는 언어적으로 확정적인 의미의 중심부와 불확정적인 의미의 주변부를 지니며, 중심부의 사안에서는 문언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하지만 주변부의 사안에서는 해석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가령 주택가에서 야생동물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을 때, 초원의 사자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만, 들개나 길고양이 등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해석자가 재량껏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분 자체가 불확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위의 법문언을 적용하는 경우 인근에서 잡힌 희귀한 개구리를 연구·보호하기 위해 발견 장소와 가장 유사한 환경의 주택가 시설에 둘 수 있을까?

최근 제기된 ㉡ 반대 견해에 따르면 문언이 합당한 답을 제공하는 표준적 사안 외에는 아무런 답을 제공하지 않는 사안과 부적절한 답을 제공하는 사안을 나눠 검토해야 한다. 법 해석의 어려움은 전자의 경우 문언의 언어적 불확정성에, 후자의 경우 문언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답이 비직관적인 데 기인한다. 이들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해석자가 문언에 구속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오로지 법률의 문언 그 자체만이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그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입법 의도나 법률의 목적이라도 동등한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 ① ㉡에 따르면 희귀한 개구리를 주택가에서 보호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민주주의의 본질을 법 적용 결과의 합당성에서 찾는다면 ㉠은 강화된다.
- ③ ㉠은 법의 해석에 있어 법의 목적보다 문언에 주목한다.
- ④ ㉡은 법 해석에 있어 법의 목적에 구속되지 않지만 ㉠은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의미의 불확정성을 극복한다.
- ⑤ ㉠과 ㉡이 불확정적 법문언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했다면, 희귀한 개구리를 주택가에서 연구 및 보호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몇 가지 특별한 믿음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는 경우는 드물다. 바로 눈앞에 있는 종이가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종이가 파란색임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의 시력이 잘못 되어 사실은 초록색인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앞에 있는 종이가 파란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는 않지만 높은 정도로 믿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믿음의 정도를 흔히 '신념도'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신념도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가령 어떤 사람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내기의 예시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일 비가 오면 2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8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내일 철수가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가령 0.4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일 철수가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6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4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몇몇 이론가들은 우리의 신념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확률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0.2의 신념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신념도가 확률 규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갑이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자. 우선 갑은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갑은 내일 비가 오면 2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8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내기 1'이라고 하자. 또한 갑은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0.4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갑은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6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4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내기 2'라고 하자. 이제 갑은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 내기 1과 내기 2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내일 비가 오는 경우 갑은 내기 1에서 200원을 받고 내기 2에서는 400원을 잃는다. 내일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갑이 얻게 될 손익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갑이 내기 1과 내기 2에 모두 참여한다면  결국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념도는 확률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19. 위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내일 비가 올 때만 200원을 잃는다.
- ② 갑은 내일 비가 오지 않을 때만 200원을 얻는다.
- ③ 갑은 내일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200원을 잃는다.
- ④ 갑이 내일 비가 오는 경우에 얻게 될 손익결과는 내일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얻게 될 손익결과보다 항상 크다.
- ⑤ 갑이 내일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얻게 될 손익결과는 내일 비가 오는 경우에 얻게 될 손익결과보다 항상 크다.

문 20.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ㄱ.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고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0.4의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확률 규칙에 어긋난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다.
  - ㄴ.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0.4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600원을 받고 비가 오면 4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 ㄷ.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질 경우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0.2의 신념도를 가질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